

건강 칼럼

정읍 문학관 세워 1300년 인문 도시 위상 높여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이 웅변하듯 위대한 인문학 자산을 활용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그동안 이런 공인된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

그러면 먼저 정읍 문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첫째, 문학관 건립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위대한 문학작품이 탄생한 곳이다.

둘째, 현대문학을 논평할 때 속고

해야 할 결출한 작가들의 출생지가 정읍이다. 1989년 MBC 8부작 드라마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완장’과 고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장마’ 및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작가 윤홍길, 고더니즘의 특징인 시각적 효과를 도입해 과학적인 실험정신으로 ‘고무신’의 시조를 쓴 시조시인 장순하, 군부독재 때 한수산 필화사건 고문 후유증으로 요절한 시인 박정만, 가수 박인희 씨의 히트곡 ‘하얀 조개비’를 쓴 시인 강인한, 22개국에서 출판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인 ‘얼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 아동문학가 이준관, 소설가 손흥규 소설가, 시인 고광현 등 가라성 같은 작가들의 고향이다.

셋째,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사,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으로써 정체가 갖춰진 문학관은 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화관, 미술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둘째, 문학 세미나, 문학 강좌, 유

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둘째, 정읍시(井邑鎭)의 좁은 틀을 뛰어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인문학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정읍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셋째,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사,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으로써 정체가 갖춰진 문학관은 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화관, 미술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셋째, 현대문학을 논평할 때 속고

말쓰기 교실, 시민 문예창작 교실, 문인들의 문학토론 장소 등 지역 문인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특색 있는 창작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

넷째, 자료만 공개하는 문학실과 장순하, 윤홍길 같은 생존 작가가 원한다면 자신의 문학실에서 자유롭게 기거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사,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으로써 정체가 갖춰진 문학관은 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화관, 미술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사설

노년에 몰락하는 사회지도층

노년에 몰락하는 사회 지도층과 유명인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 돈과 권력, 성(性)에 집착하는 노욕(老慾) 때문이다.

부정 축재를 하며 거리낌 없이 상변죄를 저지른다.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집안은 망신이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 Campaign)’도 노인들에게서 종종 발생한다.

돈과 여색으로 명예와 지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재물과 도덕은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전북대 특강

전북대 행정대학원이 국내 최고의 지방인사들을 초청하는 특별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가 보는 미래와 상상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전북 발전의 물꼬는 SW와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의 강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한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적용 가능한 실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이다.

경반이며 배푸는 때는 대개 노년의 시기다.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벌며 연애와 결혼도 한다. 사회 활동을 왕성히 하며 감부도 쓴다.

젊을 때의 지나친 색욕(色慾), 중년의 다름, 노년의 탐욕을 조삼해야 한다.

젊을 때의 지나친 색욕(色慾), 중년의 다름, 노년의 탐욕을 조삼해야 한다. 노욕(老慾)과 노욕(老欲)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조경력 강화, 경영 안정화, 우수 인력 확보 등 경쟁력 제고, 물론 상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중소기업 현장의 제조 혁신을 이룩했다.

전북대 특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난 김현미 전북대 초빙 교수의 ‘문샷생각(moonshot thinking)’으로 기획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상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특강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전략과 해법을 공유하기 바란다.

사신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멤피스 우체국 총격, 범인 포함 3명 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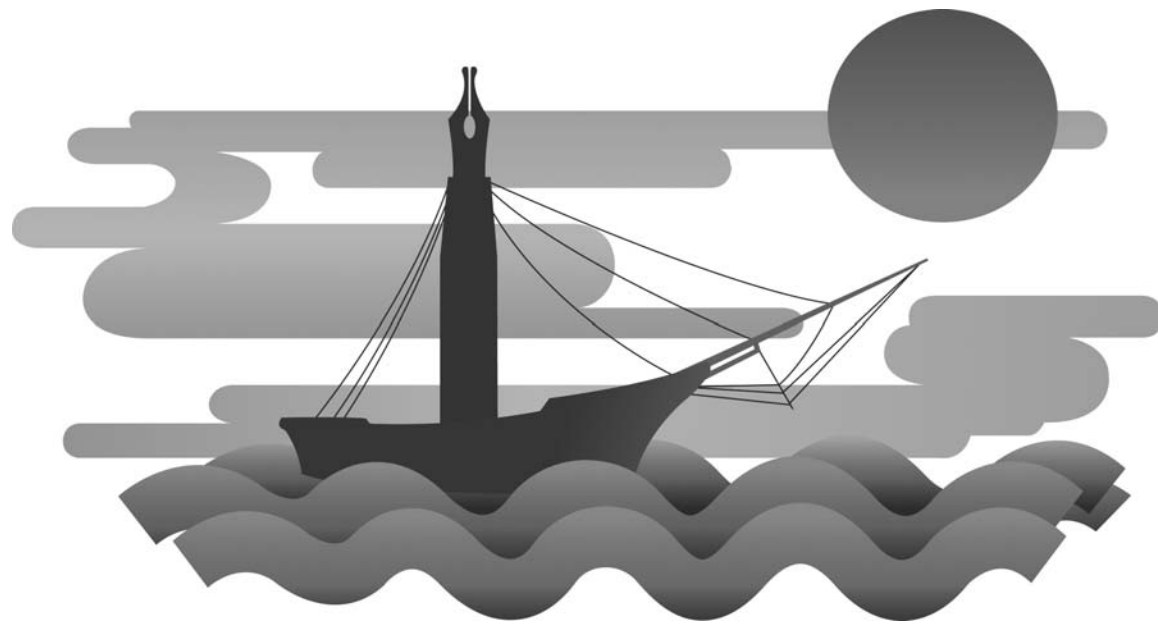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멤피스의 오렌지 마운드에 있는 우체국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한 경찰관이 현장 부근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태풍 곤파스 홍콩 통과, 한가한 거리



제18호 태풍 곤파스가 13일 홍콩을 통과하면서 비옷을 입은 주민들이 텅 빈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곤파스가 홍콩 남쪽을 통과하면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증권거래소가 휴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